



북한 기도회

2021년 2월 - 3월





기도제목1. 북한의 사이버 공격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주요 사이버 해킹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첩보 활동을 넘어 은행, 비트코인 거래소, 제약회사 등 민간단체와 기업에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이 해킹을 이용해 전세계의 은행과 기업으로부터 1조 400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정부기관 및 주요 개인에 대한 정보 해킹, 북한 인권 단체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이 더 이상 이러한 범죄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미국 법무부에 의해 올 2월 17일 공개수배된 북한 경찰총국 소속 해커 박진혁(좌), 전창혁(중), 김일(우)>

기도제목2. 북한선교 기관들과 선교사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선교단체들과 기관들이 북한의 해커집단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해킹이 감지된 선교단체가 있으며, 감지되지 않는 않았으나 중국 혹은 북한의 해킹집단에 의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은 선교 사역 전체를 망가뜨리고 사역자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사태입니다.

사역을 위해 불가피한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유출되어 각 단체들의 사역이 노출되지 않도록 선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단체들이 적절한 보안규정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3. 코로나 종식과 선교 현장의 대응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0년초 시작된 코로나가 현재까지도 선교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북중 국경의 통제가 점차 회복되어가기도 했으나 올 1월 말 중국과의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 거리두기가 다시 강조되고 있고, 2월 초 몇몇 세관의 통제가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시 귀국하신 선교사님들 중 일부는 아직도 선교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19가 종식되고 선교현장이 문이 열릴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4. 탈북민들의 국내 및 제3국 정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인권운동가 박지현씨가 구의원 선거의 보수당 경선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제 3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주류로 진출하고 이를 위해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은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탈북민들의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여전히 큼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탈북민 의료급여 수급자 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람은 23.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평균 4.6%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있는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임진각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어린이들(위)과 영국 북한인권 운동가 박지현씨(아래)



기도제목5.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과 남한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김원호, 함진우, 고현철씨를 위해 한국교회는 지난 몇년간 열심히 기도해왔습니다.

그 사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시기도 있었고, 북한에 억류되었던 3명의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등이 석방되는 등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으나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아직도 억류되어 있습니다.



최근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가지고 있고, 최근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 선언”에 주요국가들이 참석하여 북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이것이 한국 선교사님들의 석방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6. 대북 미디어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3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을 통한 외부정보유입도 극도로 줄어든
현재 라디오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복음을 북녘을 향해
전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
습니다. 이들 방송국들과 방송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
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위한 미디어사역을 방해하는 법이 더 이상 제정되지
않으며, 북한을 돕고자 하는 선교단체들이 복음과 외부소식을 북한에 전할 창의
적 방법들을 개발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7. 북한의 교육과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3월 1일부터 교사의 가정방문 교육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와 교육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2012년 김정은 등극 후 첫 정책발표가 교육제도 개혁이었음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교육 내용에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가정방문 교육은 코로나의 위협이 아직 존재하고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설이 미비한 북한의 교육지책입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특히 북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김부자 우상화교육의 영향력과 효율이 약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8. 북한의 식량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렵습니다. 국경봉쇄로 외부로부터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식량생산량이 감소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농촌진흥청은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 작물이 모두 440만t으로 지난 2019년도에 비해 5.2%가 감소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올 1월 미 농무부에서는 북한 주민 63%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약 104만 6천t의 식량 부족량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식량 수입이 불가능해지면 올해 북한에서의 사업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부족은 결국 북한의 서민들과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상황을 위해, 북한주민들이 다가오는 보릿고개 굶주림을 이겨내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